

## 300-5-137. 신문조서(陳鴻巨 외 35명 치안유지법 위반)

## ■ 陳鴻巨 외 36명 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기록 수록

- 1929년 4월 16일 金化경찰서 近南주재소에서 ‘권총 및 폭탄 휴대자 潛入風說’ 보고가 있었고, 18일에는 黃某·沈勳之·金名不詳 兄弟 등 4명이 권총 3정 폭탄 수개를 휴대하고 있으며 조선 내에서 공산주의 成果를 올릴 목적으로 암약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4월 29일에는 李奉龍이 조선독립운동의 제1인자는 金中山 先生이며, 작년 北間島에서 권총·폭탄·공산서적 다수를 반입하여 조선독립운동 및 공산주의 선전을 한다는 보고가 있어, 그 후 차압을 집행하였다.
- 李學用의 청취서가 5월 7일 작성되었고, 李奉龍의 청취서도 5월 17일에 작성되었다. 1928년 3월 19일 李寅亮·張炳淳 등에 의한 脅迫文 우송사건이 보고되어 두 사람에게 대한 소행조사가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재 조선정치국에서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宣布文과 覺書徵金令狀이 있다. 3월 21일 보고에는 李鉉俊(李鉉五)이 발송인이라 했다. 3월 21일 별지목록의 차압을 하였다.
- 1921년 5월 19일 협박문 우송사건의 증인으로 張炳淳에 대한 증인 신문조사가 실시되었고, 동일 李寅亭에 대한 증인 신문조사가 있었다. 4월 4일 朴石範·任奉泰에 대한 조사필요 보고서 가 있었다.
- 5월 8일 ‘李學用에 대한 조사건’ 조회가 있었으며, 회답이 왔다. 陳鴻巨에 대한 舉動不審者自供書에 대한 복명서가 있다. 그 후 차압이 있었고, 沈勳之의 차압도 있었다. 李斗煥의 수사복명과 차압이 있었고, 李慶住·李斗煥의 차압이 5월 10일 집행되었다.
- 金中山·李奉龍·李學用·陳鴻巨의 活動狀況과 陳鴻巨 외 8명의 체포와 연락원 48명에 대한 보고가 5월 11일에 있었다. 朝鮮共和政府 共產黨員名簿에는 조직부장 魯基寬 외 310명의 이름이 들어 있으며, 朝鮮共和臨時政府 役員名簿에는 魯基寬(조직부장) 외 87명의 성명이 수록되어 있다. 5월13일 具永祚, 17일 金衡相, 17일 朴永俊 등에 대한 사실조사, 범인수배 보고가 있었다. 5월 11일 朴致運의 수사동행 보고가 있었고, 수색조사와 압수가 있었다. 12일 陳順命, 13일 沈鉉之의 수사보고가 있었고, 5월 14일 朴致運 신문시 진술에 의거 폭탄 1개를 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崔錫鳳 집에서 차압하였다. 5월 15일 시국표방 협박사건의 수사결과, 咸宗謙·張景源·金衡相이 체포되고, 7명은 永興경찰서에서 수사중이라 보고했다. 5월 17일 鐵原경찰서에서 수사본부장에게 수사보고한 바에 의하면, 孔晁述을 체포하고 金中山을 체포하려 했으나 중산이 아니라 陳吉龍으로 판명되었다고 한다.
- 1929년 5월 17일 시국표방 협박범인 陳炳祚의 소재수사와 체포령에 따라 체포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체포자는 陳炳祚·朴培運·李述世 등이다.
- 陳鴻巨는 5월 20일 拘引되어 5월 21일 1회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았고, 5월 22일 2회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았으며, 3회 신문조사는 5월 23일에 받았다. 4차 신문조사는 5월 26일에 있었고, 27일에 5차 신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진술에 대한 사실조사가 있었다.
- 陳炳祚는 1927년 8월경 元興吉·黃奎鎭의 권유로 공산당에 가입하여 재무부장이 되었고, 9월 25일경 元興吉에게 100원을 交付하였으며 폭탄 1개 소지를 불고지하고 下記 사람을 입당시켰는데, 입당자는 李斗煥 외 14명이었다. 12월 20일경 金中山·元興吉·黃奎鎭과 당세 확장을 약속했고, 1928년 7월 10일경 金中山이 陳鴻巨에게 100원을 수령하여 공산당 조직 실행에 진력하였다. 그러므로 폭발물 취체벌칙 제8조, 제9조와 치안유지법 1조 1·2항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보고했다. 1929년 5월 21일 陳炳祚에 대한 피의자



- 신문조사가 경찰에서 실시되었으며 留置되었고, 2회 신문조사는 5월 25일 실시되었는데 호적조회도 있었다. 5월 27일 金中山·陳鴻巨의 단원모집 상황보고가 있었고, 5월 29일 '조선공화정치단원 분포 상황 및 기타 件'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① 地方別 團員數는 郡面別 合計 196명 이다. ② 위 단원집단 지방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929년 5월 30일 治安유지법 위반사건의 계통 및 생활정도 조사보고는 陳鴻巨·李東輝 등에 대한 조사보고이며, 申大均·金顯一의 조사보고도 있다. 또, 李東輝·金中山·金一先·李同英·張明厚 등의 치안유지법 위반 및 폭발물벌칙 위반사건 보고도 있다.
- 1929년 5월 31일 金化警察署長은 이 사건을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서 送致하였으며, 피의자는 李東輝 외 54명으로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